

니고데모의 안경

경기서부 백지은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캐나다에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로 교환 수업을 가게 될 기회가 있었을 때이다. 그 당시 처음으로 창조-타락-구속에 대한 개념을 접했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그 때 공교육에 있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그 시간들은 참으로 귀했고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 그리고 숙소에서도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던 선생님들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신선해서 이번에 읽은 니고데모의 안경처럼 이 세상에 대한 시야가 한 겹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 사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개혁주의 신앙이 많이 뿌리를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에 읽은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은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주고 갈무리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관은 지극히 개인적일 것 같지만 공동체적이다. 세계관은 한 문화의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세계관은 중요하다.

성경의 창조 진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들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완성을 예견하는 시작이었다. 물론 창조가 불완전했다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창조 세계는 단지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성까지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펼쳐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창조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에 역사는 창조를 시작점으로 하여 완성을 향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문화 사역자라는 것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지음 받은 사실과 직결되어 있다. 사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한다. 존재 자체가 순종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특권을 받았다. 인간에게 문화가 가능한 것은 자유라는 독특한 은사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화명령 즉, 창조시에 주신

명령과 지상명령은 동일한 맥락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또 다른 명령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이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선 순례자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을 본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즉, 말씀을 재료로 만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는 확신 있는 비전일수록 반드시 시민적 성숙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확신에는 차 있으나 독단과 편협성에 빠져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다원주의 시대를 살지만 다원주의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앙이 무례함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새로운 안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열려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